

## 숨막히는 폭염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수돗물 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반가정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 뿐만 아니라 어패류 폐사도 잇따르면서 사상 최대의 폭염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 사위·세탁 급증 ... 광주 수돗물 생산·사용량 사상 최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도 덩달아 솟구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루 물 생산량이 55만6146t(㎥)으로 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 평균(1일) 생산량(47만4715t)과 비교하면 7만9507t이나 많은 양이다. 지난해는 광주시가 상수도 시대를 연 이후 물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폭염의 위세를 반영하듯 올해 평균

물 생산량은 48만3539t으로 지난해 기록을 1만t 가량 넘어섰다. 날이 무더운 만큼 샤워나 세탁 등의 횟수가 많아진 것이 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인 폭염에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시의 물 구입 예산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원수의 40%가량을 한국수자원공사(K-위터)에서 구입한다. 광주시 자체 수원지인 화순 동북호의 저수율이 80%를 웃돌고 물 공급 여력도 충분하지만 정수능력에

한계가 있어 물을 사온다. 동북호 물을 정수하는 용연정수장의 1일 처리능력은 30만t. 요즘 같은 폭염기에 최대한 가동해도 31만5000t이 한계다. 나머지 23만~25만t 가량은 주암호 물을 공급받아 남구 덕남 정수장에서 정수해 가정에 공급한다. 문제는 주암호 물 가격이 t당 223원으로 동북호 48원의 4배 이상이다. 시는 매년 150억원 가량을 물값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물 공급 추세라면 10억원 남짓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료 폭탄 ... 800kW 사용, 상가 11만원·가정은 37만원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지만, 상가와 사무실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500kWh 똑같이 전기를 사용한 가정과 상가의 전기요금 부담액을 보면 가정용은 누진제에 따라 13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상가용은 8만3000원 가량 부과된다.

800kWh를 사용할 경우 상가용은 11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가정용은 37

만원 가량 부과된다. 똑같은 전력을 사용했는데도 가정용이 상가용보다 3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상가용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이유는 가정용은 6단계 누진제 체계지만 상가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용은 가정용(6단계 구간)에 따라 410원~1만2940원)보다 기본요금(계약전력 5kW 기준·3만800원)은 높지만 누진제 적용 없이 계절에 따라 전력량

요금만 차등 적용한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6~8월)에는 kWh당 105.7원, 봄·가을철(3~5월·9~10월)에는 65.2원, 겨울철(11~2월)에는 92.3원을 적용한다. 가을에 500kWh를 사용하면 가정용은 13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상업용은 6만3000원 가량으로 더 저렴해진다. 이처럼 상업용이 가정용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여름철 '개문(開門)영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어패류·가축 폐사...광주·전남 한달새 70여만마리 피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패류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흥 특량만 해역 한 양식장에서 낚치 5만2000

마리가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 12일엔 완도 금일도 해상에서 양식장 전복이 폐사했다.

전남도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다 수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서 어패류가 폐사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근 한달 동안 전남지역에서 사육하는 닭 등 가축 65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각 시·도별 가축 사육능가 폭염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지역은 지난달 15일부

터 이달 16일까지 모두 65만1619마리가 폐사했다. 이는 전국 13개 광역단체 중 전북(124만9442마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축별로는 닭이 57만5580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리 7만5455마리 ▲돼지 584마리 등이다.

한편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지난 16일 오후 8시를 기해 장흥~여수해역(장흥군 노력도 종단~여수시 돌산도 동측 종단)에 적조 관심(적조생물출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민생·민주·평화의 위기...DJ가 그림다”

### 김대중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 갈라진 두 野 치열한 ‘작통’ 경쟁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추도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립 등 야당 인사뿐 아니라 여권 인사를 포함, 400여명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을 추도했다.

특히 지난해 야권이 돌로 갈라진 후에 처음 열린 추도식인 만큼 두 야당 인사들은 저마다 ‘DJ 정신 계승’을 앞세워 적통 경쟁을 벌였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의원단을 비롯, 문재인 전 대표,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안철수 전 상임대표를 필두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동료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추도식장을 찾았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여야 인사들은 본 추도식에 앞서 귀빈실에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티타임을 갖고 안부를 주고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의 위기 앞에서 당신

께서 보여주신 해안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광주·전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랐다. ‘김대중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사업회’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광주전남 추도식을 열었다.

추도식은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시민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사업회는 16~20일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린다.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도 하의면 추모위원회가 마련한 추도식이 열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 여자 태권도 대표팀의 김소희가 17일 오후(현지시간)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에서 티아나 보그다노비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태권도 김소희 금 ‘10-10’ 막판 총력



‘메달 가뭄’에 허덕이던 한국이 다섯 만에 값진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3회 연속 ‘10-10’(금메달 10개·종합 톱 10) 달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한국 선수단은 대회 폐막을 나흘 앞둔 18일(한국시간)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가 태권도 여자 49kg급에서 티아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를 7대 6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우올림픽 태권도에 나선 5명 중 첫 금메달 주인공으로, 한국 선수단에는 7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김소희는 올 해 열리는 제 97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김태훈(22·동아대)도 이날 오전 태권도 남자 58kg급 동메달결정전에서 승리,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22·연세대)는 19일 예선에 출전,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을 노린다.

한편,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로 종합순위 11위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힘내라 코리아! Rio 2016

19일(금) 〈한국시간〉  
19:30 골프 여자부 3라운드  
22:20 리듬체조 로테이션1 순연재 출전  
20일(토)  
04:20 리듬체조 로테이션4 순연재 출전  
19:00 골프 여자부 4라운드

www.sansu-ga-dk.com

무등산 생활권! 동구의 높은 미래가치!

## 광주를 빛낼 프리미엄 주거타운!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

9월초  
오픈예정

총 1,074세대 명품대단지 중 일반분양 608세대 64㎡ · 84㎡ · 114㎡ | 시행 산수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GA (주)지에이건설** ◀ (주)대광건설

**Greenwell 지에이 그린웰** **Daekwang 로제비앙**

- 광주 동구 대단위 주거타운의 중심 **1,074세대 대단지**
- 무등산 생활권, 푸른길공원 등 **프리미엄 자연**
- 초, 중, 고, 대학교 밀집지 등 **광주 교육중심지**
- 제1,2순환도로, 지하철2호선(예정) 인접 **쾌속 교통환경**
- 4베이, 4룸, 팬트리장 제공 등 **최고의 명품아파트**

↑ 광주고교차로 ↑ 두일고교차로 ↑  
계림오거리 **현장** 산수공원 산수도서관 산수오거리 푸른길분수공원 조선대입구 ↓ 금남로4가역 ↓

↑ 시청 ↑  
세정아울렛 **상무역** 전지랜드 화정역  
공영 **주택전시장**

문의 **062) 352-1000**

※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 본 홍보물에 기재된 개발계획 등은 해당 기간 및 자연재해의 영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자의 무관합니다.